

‘AI 혁신’에 사라지는 일자리 아마존·구글 등 구조조정 바람

아마존, 최대 3만명 인력 감축
향후 운영 75% 로봇으로 자동화

AI 효율화 명분으로 해고 논란
전문가, 기술 독점체제 지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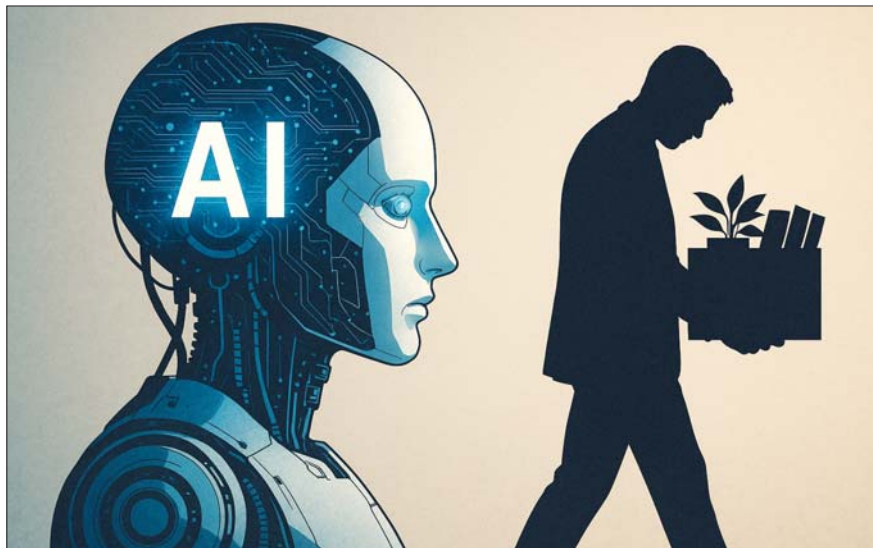
AI가 혁신을 부르짖는 사이, 사람들은
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AI 효율화’를 명분으로 최대 3만 명의
인력을 감축하면서 전 세계 대기업들이
해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구글·MS·
메타·UPS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라 수
천 명의 직원을 줄이는 가운데, 공통된
이유는 하나다. 바로 AI다.

30일 〈메트로경제신문〉취재에 따르
면 아마존은 인공지능(AI) 혁신을 내세
워 본사 인력 최대 3만 명을 감원한다.

지난 28일(현지시간) 베스 갈레티 아
마존 인력담당 수석부사장은 “AI는 인
터넷 혁명 이후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라며 “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군살을
빼겠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물류·클라
우드·광고 부문 전반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의 75%를
로봇으로 자동화하고 전체 직원 150만
명 중 50만 명을 AI 시스템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AI발(發) 해고는 아마존만의 일이 아
니다. 로이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에 따르면 UPS는 올해에만 운영인력 3
만4000명, 관리직 1만4000명을 줄였다.
메타는 AI 부문에서 6000명을 감원했다.
구글·MS·인텔·IBM·델·세일즈포스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비슷한 이유로 인
력을 축소하고 있다. MS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이유로 전 세계 인력의 4%
인 9000명을 줄였고, 구글은 지식정보·
마케팅 부문에서 희망퇴직을 받았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AI발 해고’ 이미지.

메타는 “조직의 민첩성을 강화한다”며
3600명을 감원한 뒤 추가 구조조정을 예
고했다.

흥미로운 점은 실적이다. 아마존은 2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77억 달러를 기록했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964억 달러로 14% 늘었다. 메
타 역시 매출이 22%, 순이익이 36% 상
승하며 역대급 실적을 냈다. 그만큼 이
어지는 대규모 해고를 일반적인 비용 효
율화나 인건비 절감을 통한 실적 개선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이번 해고 바람이 실제로 ‘AI 패
문’ 인지는 논쟁적이다. 옥스퍼드대 파
비안 스테파니 교수는 “기업들이 AI를
좋은 변명으로 삼아 해고를 정당화한
다”고 꼬집었다. 팬데믹 시기 과잉 채용
했던 인력을 정리하면서 ‘AI 효율화’라
는 포장지를 덧씌운다는 비판이다.

예일대 버지캠프 연구 결과도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연구진은 챗GPT 등장 이
후 미국 노동시장에서 ‘AI 자동화로 인
한 대규모 고용 감소’의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40%는 “해고는 없었다”고 답했
고, 대신 신규 채용을 줄였다고 응답했
다. 즉 ‘AI가 해고를 일으키는 게 아니
라, 채용을 막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잇따라 경고음
을 냈다. IMF는 “AI는 단순노동뿐 아
니라 고숙련 직종까지 자동화해 생산성
과실이 상위층에 집중될 수 있다”고 분
석했다. BIS는 “AI 투자가 많은 국가일
수록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높아진
다”고 지적했고, OECD 역시 “AI 숙련
자와 비숙련자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90% 이상 직무
가 단기간 내 AI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술보다 기술을 독점한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다. IMF와 BIS는
▲실직자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강화 ▲
재교육 및 직무 전환 훈련 확대 ▲AI 인
프라 접근성 공공투자 확대 ▲AI 기업
의 책임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CNS, 3분기 누적매출 4.2兆 기록

금융·공공 AX 사업으로 입지 확대
클라우드 섹터 등서도 성과 입증

AX(인공지능 전환) 전문기업 LG CN
S는 올 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액 4조
1939억원, 영업이익 3399억원을 기록했
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
비 5.9%, 영업 이익은 8.7% 증가했다.

◆ AI·클라우드 매출 지속 성장…AX
사업 확대

LG CNS의 주요 성장 엔진인 AI와
클라우드 분야의 3분기 누적 매출은 지
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7% 늘어난
2조4692억원을 달성했다.

AI 영역에서는 금융·공공 AX 사업
을 확대하며 시장 내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특히 금융 영역의 AI·데이터 플랫
폼 사업과 외교부, 경기도교육청, 경찰
청, 기상청,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해
양진흥공사 등 주요 공공 부문 AX 사업
을 잇달아 수주하며 안정적인 매출 성장
을 이뤄내고 있다.

국가대표 소버린 AI 모델 ‘엑사원’,
코히어와 공동 개발한 초대형·경량형
거대언어모델(LLM) 등 다양한 AI 모
델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클라우드 섹터에서는 데이터센터 설
계·구축·운영 사업자로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국내 기업 최초로 해
외(인도네시아)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우
정통신그룹,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과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 개발 협
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대한항공 애플
리케이션 현대화 사업도 성공적으로 마
무리하며, 클라우드 사업 역량과 경쟁
력을 입증했다.

◆ K-산업 투자 확대 수혜…포트폴리
오 다각화

스마트엔지니어링 분야의 3분기 누적
매출은 7794억원으로 집계됐다. 스마트
팩토리 섹터는 상반기 수주한 방산(스마
트엔지니어링 사업), 정유(디지털트윈
사업), 공공(강원 곤충 스마트팩토리팜
사업) 부문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
하고 있다. 반도체(무인운송로봇 사업),
제약(생산관리시스템 사업) 부문에서도

추가 수주를 따내며 사업 영역을 확장
중이다. 또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위한
경량형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개발을 완
료해 첫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스마트물류 섹터는 북미 2차전지 제
조 확대에 따른 공정 물류 사업을 발판
으로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뷰티·푸드·
패션·방산 등 K-산업 성장 기반 물류
투자 증가에 대응해 포트폴리오를 다변
화하고 수주를 늘려가고 있다고 회사 측
은 부연했다.

디지털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3분기
누적 매출은 9453억원을 기록했다. LG
CNS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K-뱅
킹 시스템 수출을 선도하며 글로벌 금융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인도네시
아 시나르마스 은행 차세대 카드시스
템, 싱가포르 현지에서 글로벌 은행 뱅
킹 현대화 사업을 수행 중이며, 디지털
화폐(CBDC) 플랫폼을 토대로 국고보
조금을 유통하는 ‘프로젝트 한강’ 2차
시험 사업도 수주했다.

◆ 에이전틱 AI, 피지컬 AI로 미래 먹거
리 확보

미래 성장 동력인 에이전틱 AI와 피
지컬 AI 사업도 순항 중이다. LG CNS
는 기업용 에이전틱 AI 플랫폼 ‘에이전
틱웍스’와 업무 혁신 서비스 ‘에이엑스
씽크’를 출시해 에이전틱 AI 사업을 본
격화했다. 에이전틱웍스의 경우 금융권
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념 검증을
추진 중이며, 에이엑스씽크는 LG 계열
사 및 대외 고객 약 20곳과 도입을 논의
하고 있다. 이외에 통상 2년 정도 소요
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시간을 6~12개월
로 줄이는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 ‘AI
박스’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기반의 RX(로봇 전
환) 사업도 펼쳐지고 있다. LG CNS는 글
로벌 톱 티어 AI 로봇기업 스킨드 AI의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조 공장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학습시켜 유해물질을
다루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작 정확도
를 높이는 중이다. 이와 함께 협로 주행
소형 자율이동로봇 사업 등 다양한 로봇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산업 전반에서 R
X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1@

최수연 “로컬문화, IP·콘텐츠 되도록 지원”

〈네이버 대표〉

최 대표, 경주 ‘비로컬위크’ 현장 방문
단말기에 ‘N pay 커넥트’ 시범도입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APEC 행사가
열리고 있는 경주를 찾아 로컬 사업자들
과 만나고, 디지털 생태계에서 로컬 콘
텐츠가 지닌 가치와 역할을 강조했다.

30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 대표는 지
난 28일 경주 황리단길에서 진행 중인
네이버의 ‘비로컬위크(Be Local Wee
k)’ 현장을 방문해 청년 예술가와 로컬
SME가 운영하는 ‘청년감성상점’을 돌
러보고, 지역 상인 및 창작자들과 대화
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그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이 글로벌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로컬의 문
화와 역사가 곧 지역의 IP이자 스토리텔
링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네이버
의 AI 기술과 지도, 페이 등 탐네이버의
역량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로컬위크’ 참여 매장 일부에
는 네이버페이의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캠페인 현장에서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통합 단말기 ‘Npay 커넥트’로 결제를 진행 중인 최수연 대표.

/네이버

인 ‘Npay 커넥트’가 시범 도입돼, 방문
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결제와 혜택을 이
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로컬 상권의 디
지탈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AI 기술뿐
아니라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함께 찾은 주낙영 경주
시장은 “경주는 전통과 청년문화가 공
존하는 도시로, ‘비로컬 캠페인’의 출발
지로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청년과 소

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도록 경주시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지난 25일부터 31일까
지 경주 황리단길 일대에서 ‘비로컬위
크’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네이버는 향
후 전국 각지로 캠페인을 확대해, 지역
SME들이 로컬 특색을 기반으로 한 글
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 AX, 신임 사장에 김완중 CCO 선임

디지털 전환, AI 혁신 주도해와

SK(₩) AX는 30일 김완중 최고고객
책임자(CCO·사진)를 신임 사장으로 승
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앞으로 제조·통신·금융·에
너지·서비스 등 핵심 산업에서 AX(인
공지능 전환) 중심 고부가 가치 사업 모
델 확대와 고객 성과 창출을 책임지게
된다.

김 사장은 SK C&C(현 SK AX)에서
회사와 그룹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을 주도해 왔다.

SK AX는 “김 신임 사장은 지난 2020
년부터 SK C&C 클라우드 부문을 이끌
며 SK그룹과 주요 산업 전반의 인프라
를 클라우드 중심 구조로 재편하고, AI
가 실제로 작동하는 산업 플랫폼으로 확
장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2023년
부터는 SK AX CCO로서 AI·클라우드



드·데이터를 통합한
AX 플랫폼을 산업 현
장에 적용해 생산성
향상, 비용 최적화, 품
질 고도화 등 가시적
인 성과를 내며 그룹
과 대외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AX 확산
을 선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장 선임을 통해 SK AX는 그
동안 축적한 AI 역량을 한 단계 진화시
켜, 국내 주요 산업의 비즈니스 구조와
수익 모델을 AX 중심으로 전환하는 역
할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중 사장은 “SK AX는 AI 플랫폼
과 산업별 실행 모델을 결합한 AX 혁신
체계를 토대로 국내 기업의 본원적 경쟁
력 강화에 앞장설 것”이라며 “다양한 산
업 현장에서 검증된 성과들을 기반으로
AX 확산 속도를 한 단계 높여 나가겠
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